양계경영상의
부기회계 (V)

조 용 희
<영남대 축산대학 강사>

5. 분개(分介)와 전기(轉記)

복식부기란, 매일 일어나는 거래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처리하여, 1회계기간(一會計期間)의 손익(損益)을 분명히 산출하기 위한 계산기술(計算技術)이라고 하겠으므로, 우선 거래의 처리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거래 → 분개 → 계정에 전기 → 결산

(분개장)……→(원장)……→결산서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 분개란 무엇인가?

어떤 거래이든 일단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좌우로 분해(分解)되어, 서로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분해된 각각의 거래는 장부에 기입되어야 하는데, 이때 양측면에서 포착된 요소를 어느 계정의 차변과 어느 계정의 대변에 얼마만한 금액으로 기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분개(分介, Journalizing)라고 한다. 그러므로 분개는 복식부기의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고, 장부기입(帳簿記入)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요는 분개가 장부 기입의 예비적인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예비적인 수속이 필요한가 의문이 날 것이다. 그 이유는 매일 번잡하게 일어나는 거래를 직접 각 계정에 기입하게 되면, 기입장소가 잘못된다든지, 기록을 빠트린다든지 하는 위험이 생기기 쉽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를 직접 계정에 기입하지 않고, 그에 앞서서, 그 거래는 어느 계정의 차변과 대변에 기입될 것인가를 정해서, 예비적인 기록을 해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부기에 있어서는 모든 기록이 분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분개가 잘못되면 모든 기록이 정확성을 잃고 만다. 따라서 분개만 정확하면, 다른 기록들은 분개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실무(會計實務)의 열쇠가 쥐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분개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며, 분개를 모르면 다른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과 같이 되고 만다. 그런고로 분개의 방법은 완전히 이해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2) 분개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분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령이 필요한가를 순서대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예 1) —현금 ₩10,000을 예금하다.—

라는 거래를 예로 들면,

첫째는, 관련되는 계정과목(計定科目)을 결정해야 된다. 기업(企業)은 각자의 사정에 알맞는 계정과목을 설정(設定)하게 되므로(계정과목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함)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계정과목 일람표중의 어느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한다. 즉 거래는 2중성(二重性)에 의해서 반드시 양측면으로 포착되

므로, 양쪽에 기입될 두가지의 과목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금계정(現金計定)과 예금계정(預金計定)이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이들 두 과목은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현금은 자산계정의 과목이고, 예금도 자산계정의 과목이다.

셋째는, 이 자산 계정은 대차대조표 혹은 손익계산서중 어디에 속하는 계정인가를 알고, 차변·대변중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차변) 대차대조표(대변)		(차변) 손익계산서(대변)	
자 산	부 채	비 용	수 익
	자 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은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위치하는 계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금과 예금이 모두 대차대조표의 차변 과목임을 알 수 있다.

넷째는, 해당 과목의 증감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차변 과목은 그 금액의 증가를 차변(左側)에 기입하고, 감소를 대변(右側)에 기입한다. 또한 대변 과목은 그 금액의 증가를 대변(右側)에 기입하고, 감소를 차변(左側)에 기입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개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a. 자산계정은 차변에 증가
   대변에 감소
b. 부채계정은 차변에 감소
   대변에 증가
c. 자본계정은 차변에 감소
   대변에 증가
d. 비용계정은 차변에 발생
   대변에 감소
e. 수익계정은 차변에 감소
   대변에 발생

(예 1)에서 자산인 현금 ₩10,000은 예금을 하므로서 감소하게 되고, 동시에 자산인 예금 ₩10,000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금 ₩10,000은 대변에 오게되고, 예금 ₩10,000은 차변에 오게된다. 이를 분개해 보면

(차) 예금 ₩10,000, (대) 현금 ₩10,000이 된다.

그러면 두가지 더 예를 들어 분개해보자.

(예 2) —계란을 출하(出荷)해서 현금 ₩3,000을 받다.

첫째, 관계되는 계정 과목을 현금과 계란수익

둘째, 현금은 자산계정, 계란수익은 수익계정

세째, 자산은 대차대조표의 차변과목,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대변과목

넷째, 차변 과목의 증가는 좌측(左)에 오므로 차변에 현금 ₩3,000, 대변과목의 증가는 우측(右)에 오므로 대변에 계란수익 ₩3,000, 그래서 (예 2)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3,000 (대) 계란수익 ₩3,000
(자산증가) (수익 발생)

(예 3) —차입금 ₩10,000으로 손수레 한대 구입하다.—

첫째, 관계되는 계정 과목은 차입금과 운반구(運搬具).

둘째, 차입금은 부채계정, 운반구는 자산계정.

셋째, 부채는 대차대조표의 대변과목, 자산은 대차대조표의 차변과목.

넷째, 대변과목의 증가는 우측(右)에 오므로 대변에 차입금 ₩10,000, 차변 과목의 증가는 좌측(左)에 오므로 차변에 운반구 ₩10,000, 따라서(예 3)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운반구 ₩10,000
(자산증가)
(대) 차입금 ₩10,000
(부채증가)

하여튼 분개는 복식부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초보자에게는 퍽 까다롭게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원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 문제를 다루는 동안 응용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번 더 다음 사항을 되새기면서 실제거래(實際去來)로서, 5월중에 일어난 서울양계장의 거래 사실을 분개연구해보기로 하자.

(차변)	(대변)
자 산	부 채
비 용	자 본
	수 익

3) 분개의 실제

—5월 1일, 산란중기용 배합사료 ₩50,000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이 거래는 교환거래로서 배합사료라는 자산이 ₩50,000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50,000 감소하는 거래이다. 그러나 배합사료 등의 소비자재(消費資材)는 불과 수일내에 전부 소비되고 마는 것이므로, 손익거래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사료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식으로 분개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므로 분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차) 성계사료비 ₩50,000 (대) 현금 ₩50,000.

물론 배합사료가 다량 입고(入庫)된후 반년이나 1년이상 쓴다고 보면, 일단 자산으로 처리해야 마땅하지만, 내용물의 변질문제가 따르는 이상 단부득 멀어도 1개월 이내는 쓰여지지 않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들여온 배합사료는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은 어디까지나

a. 구입시에 (차) 배합사료 ₩50,000
(대) 현금 ₩50,000
b. 소비시에 (차) 성계사료비 ₩50,000
(대) 배합사료 ₩50,000

으로 분개를 해야겠지만, 이는 곧 소비될 것이 분명하므로 2중(二重)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단순히 (차) 성계사료비 ₩50,000 (대) 현금 ₩50,000으로 분개하고 마는 것이다. 위의 a,b, 두 거래에서 양쪽의 공통과목인 "배합사료"를 상쇄하게 되면 결국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말(期末)에 재고(在庫)가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문이 나겠지만, 이 설명은 뒤로 미룬다.

—5월 3일, 계란 10박스를 남대문 시장에 출하하여 대금 ₩45,000 받아서 은행에 보통예금하다.—

이 거래는 계란 수익이라는 수익이 ₩45,000 발생하고, 예금이라는 자산이 ₩45,000 발생하는 거래이다. 따라서

(차) 보통예금 ₩45,000 (대) 계란수익 ₩45,000

—5월 8일, 장마철에 대비해서 창고의 천정을 손질하다. 작업하는데 현금 ₩2,000들었다.—

이 거래는 수리비라는 비용 ₩2,000이 차변에 발생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감소하는 거래이다. 그러므로

(차) 수리비 ₩2,000 (대) 현금 ₩2,000

—5월 10일, 구충제 ₩3,500어치 외상으로 구입하다.

구충제는 수의 약품비로서, 손익계산서의 차변과목인 비용이고, 외상매입금은 대차대조표 대변과목으로서 부채이므로,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이다.

(차) 수의약품비 ₩3,500 (대) 외상매입금 대 3,500

—5월 15일, 부로일러 1000수를 ₩280,000에 판매하여, 현금 ₩200,000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양계기술(技術)상 부로일러는 입추(入雛)서 완성(完成)까지의 기간이 불과 56일 내외의 단기간이므로, 채란계와는 달리, 유동자산(流動資産)이다. 따라서 편의상 장부에는 부로일러에 들어간 모든 지출은 당기(當期)의 비용으로 보고 판단함으로서 나오는 수입은 그대로 당기(當期)의 수익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특별히 원가계산을 하지 않는 이상 순이익은 알수 없다. 그래서 이 거래는 대변에 부로일러수익 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차변에는 현금과 외상매출금이라는 두 종류의 자산증가를 초래하는 거래가 된다. 따라서 이 분개는

(차) 현금 ₩200,000
(〃) 외상매출금 ₩80,000
(대) 부로일러 수익 ₩280,000

—5월 18일, 불편한 대로 견뎌왔던 A동 채란계사의 내부를 여름철에 대비하여 대폭 개조(改造) 수리하다. 공사비로 현금 ₩70,000이 들었다.—

이 거래는 얼핏보면 수리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손익 거래를 보인다. 그러나 계사(鷄舍) 한동(棟)에 70,000원이나 들여서 대폭 구조를 개선(改善)하고 수리를 한 것은, 분명히 그만큼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거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계사라고 하는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다시말하면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로 보아주는 거래로 처리하게 된다. 이런 지출을 자본적지출(資本的支出)이라고 하는데 회계학상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물론 소액(小額)의 간단한 수리정도는 비용이 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차후 이론적인 검토를 할 기회가 있다고 본다. 여하튼 이 거래는 경비(經費)인 비용이 아니고, 자산인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래이므로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건물 ₩70,000 (대) 현금 ₩70,000

—5월 19일. 산란 말기용 사료로 변경시키려고 스트레스 방지를 위해, AD_3 수용제를 외상으로 ₩7,200어치 구입하다.—

이 거래는 비타민제인 약품 비용의 증가와,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거래이다. 따라서 분개는

(차) 수의 약품비 ₩7,200 (대) 외상매입금 ₩7,200

—5월 20일, 산란 말기용 배합사료 ₩64,000 외상으로 구입하다.—

역시 배합사료 등은 곧 소비될 것으로 보고 비용으로 처리하며, 외상매입은 부채로서 대차대조표의 대변 항목이므로 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차) 영계사료비 ₩64,000 (대) 외상매입금 ₩64,000

—5월 23일, 지난달에 외상으로 들여온 사료대 ₩85,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경우는 이미 지난달에 외상 사료대가 외상매입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있던 외상매입금이 감소하는 거래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의 결합관계이다. 부채는 원래 대차대조표 대변항목인데 감소되므로서 차변에 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 분개는

(차) 외상매입금 ₩85,000 (대) 현금 ₩85,000

—5월 25일, 대구양계장에서 빌린 원금 ₩30,000과 이자 ₩1,500을 보통 예금에서 지불하다.—

이 거래는 차입금이라는 부채 ₩30,000이 감소하는 동시에 지급이자라는 비용이 ₩1,500발생하고, 예금이라는 자산 ₩31,500이 감소하는 거래이다. 이를 분해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혼합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 (차) 차입금 ₩30,000 (대) 예금 ₩30,000

b. (차) 지급이자 ₩1,500 (대) 예금 ₩1,500

그런데 이런 경우는 편의상 과목이 같은, 예금쪽의 금액을 합해서

(차) 차입금 ₩30,000

〃 지급이자 ₩1,500

(대) 보통예금 ₩31,500으로 분개하게 된다.

—5월 25일, 5월분 급료로 김군과 이군에게 각각 ₩15,000씩 지급하다.—

급료는 비용이므로 차변에 발생하고, 동시에 현금이 감소되므로 현금은 대변에 기입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급료의 합계를 그대로 기입하고, 일기장이나 분개장에 "김군외"라는 표시만 해주면 된다. 따라서

(차) 급료 ₩30,000 (대) 현금 ₩30,000

—5월 28일, 지난번 부로일러 외상대금 ₩50,000을 현금으로 받아서 보통예금 구좌에 입금시키다.—

이 거래는 외상매출금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던 자산이 감소하고, 예금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증가하는 교환거래이다. 이 거래를 또 분해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차) 현금 ₩50,000 (대) 외상매출금 ₩50,000

b. (차) 예금 ₩50,000 (대) 현금 ₩50,000

그러나 이 두가지의 거래는 바로 a. b. 순으로 행해 졌기 때문에, 양쪽의 현금을 서로 상쇄해 버리고, 수고를 던다. 따라서 이 경우도.

(차) 보통예금 ₩50,000 (대) 외상매출금 ₩50,000이 된다.

—5월 30일, 장남의 책 값으로 현금 ₩2,000을 지급하다.

이런 경우도 얼른 생각하면, 책대라는 비용과 현금이라는 자산의 결합이 아닌가 싶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주체(主體)라는 것을 회계의 전제(前提)로 한다. 그러므로 장남의 책값은 경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가능하면 영세 양계업에서는 가계(家計)와 경영(經營)을 분리해야만 경영의 순손익(純損益)을 산출(算出)할 수 있음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그렇지만 대개 소규모의 양계업은 가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자본(資本)의 인출(引出)을 의미하는 가계비계정을 만들어 처리해도 좋으나, 보통의 경우는 양계경영이 가계에 제공한 현금과 현물 등을 건건(件件)히 메모했다가 월말(月末)에 일괄합계 하여 자본금에서 빼내는 방법이 좋겠다. 그러면 자본금을 빼내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지만, 이 문제는 기말(期末)에 순이익(純利益)을 자본금으로 넣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자본금이 ₩2,000 줄고, 현금이 ₩2,000 줄어드는 분개가 된다. 그러므로 이를 분개해 보면.

(차) 자본금 ₩2,000 (대) 현금 ₩2,000이 된다.

이런 가계비 관계는 농업부기나 축산 부기의

다목적 요도 주제
살균 세척 탈취 소독제

요도솔-에스

IODOSOL-S
(보사부허가 193-33호)

⊙ 타소독제보다 4~6배나 강력한 살균력과 침투력이 우수한 소독약
⊙ 60초 이내의 빠른 살균력이 있는 소독약
⊙ 모든 균,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작용하는 광범위한 효력과 비선택형의 소독약
⊙ 음료수소독 가능할 정도의 안전성에 있는 소독약
⊙ 100~2000배까지의 희석가능한 경제적인 소독약
⊙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력이 강한 소독약
⊙ 외화를 절약한 최초의 군납된 소독약
(포장단위 : 450, 1ℓ, 18ℓ)

판매처 : 전국약품취급처

11종류 소독약을 제조하는 소독제의 전문메이카

제 조 발 매 원
한일양행의약품(주)
서울 · 성동구성수동1가3

고래표 53-7333/7334 (야간) 38-1020

(설명서 청구 및 지방주문과 각도 대리점문의는 서울광화문우체국사서함 299호로)

경우에 상당히 중요하므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좀더 설명해 본다.

자산 ₩2,000이 감소한다는 것은,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대차대조표 등식에 비추어 보아, 부채가 변동하지 않을 때, 만부득 자본이 줄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 양계장의 경우는 몇천수 규모의 개인경영(個人經營)이므로 이러한 분개가 되었으나, 기업이 법인체(法人體)인 경우에는 경영자의 장남에게 책값을 준 것은 경영자의 가게에 ₩2,000 빌려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체 경영일 경우는

(차) 대여금 ₩2,000 (대) 현금 ₩2,000 식으로 분개될 것이다.

—5월 31일, 수도료 ₩3,000과 전기료 ₩2,7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수도료와 전기료는 모두 비용계정이다. 그런데 특별히 수도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든지 전기료가 큰 비중을 차지해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 두가지를 합해서 수도 광열비라는 하나의 계정으로 만드는 것의 보통이므로, 내역은 앞으로 나올 전표(傳票)나 분개장(分介帳)에 일기(日記)로만 기입하고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한다.

(차) 수도광열비 ₩5,700 (대) 현금 ₩5,700

이상 분개한 것은 실제 양계경영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문제중의 일부인데, 매일 매일 수없이 일어나는 거래들을 거의 자동적(自動的)으로 즉각 분개 해낼려고 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기본적인 모든 사항을 잘 이해해 두도록 해야한

* 계군마다 한권씩

양 계 경 영 일 지

1권당 100원

주문처 : 중구 양동 44—28, 대한 양계 회협